

EU, 개도국과 농산물무역 강화

EU 농업장관회의가 아일랜드 킬라니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EU의 관계, 특히 식품과 농산물무역에 관한 강한 연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EU위원회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규정과 이 규정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EU위원회는 EU의 식품안전성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재정 제공을 하고 있다. 나아가서 EU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게 시장을 접근할 기회를 창출해 주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 및 소비자 보호 집행위원(Commissioner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인 David Byrn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U는 세계에서 식품 수입에 가장 개방적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장 진입에 관한 무관세 접근을 제한한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지금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게다가 EU가 제시하는 식품안전성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자국민에게도 안전한 식품을 보다 쉽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EU와 식품 무역을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진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농업담당집행위원 피슐러(Franz Fischler)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난한 나라들이 국제적 상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가 필요합니다. 이들 국가는 부유한 나라의 무역 왜곡적 농가 보조금을 신속하게 감축할 것과 자국의 농업시장 접근이 용이해지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국제무역기구(WTO)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길 바라며 무역에 대한 기회와 보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EU가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²⁸

1. EU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EU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EU의 식품안전성 기준을 만족해서 그 국가와 허용품목(establishment)이 ‘명단에 실려야만’ 한다. 이는 EU 회원국을 대표하여 EU 위원회가 수입품의 EU 식품안전성 기준 만족 여부를 검사한 뒤 관리하는 명단에 올린다는 의미이다. 현재 EU는 세계 100개 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브라질과 같은 큰 국가의 경우에는 명단에 473개의 허용품목이 실려 있고, 보통 더 작은 국가들도 EU에서 많은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 가나는 수산물에 대해 67개의 허용 품목을 가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수출자격이 있는 당사국 및 EU로 수출을 원하는 국가의 해외 대사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명단에 등재하고자 하는 허용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2. 지역분권화 : 위험 없는 유연성

식품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전반적인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도 유연한 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EU는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구제역과 같이 위험한 질병이 발발하자 EU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입을 허가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서 EU는 지역을 나누는 지역분권화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EU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부 아프리카 등과 같은 곳에서의 신선한 쇠고기 수입은 허락하면서도 현재 발병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수입은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연한 접근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쉽게 따라하지 못한다. 대신에 EU 내 한 회원국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전체 EU가 해당 품목을 수출할 수 없는 차별적 대우를 당하기도 한다.

3. 기술 보조

EU와 그 회원국들은 세계에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가장 큰 공헌자들이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는 EU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개발도상국에게 기술 보조를 하거나 능력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60개 아프리카 카리브해와 태평양 국가들, EU 회원국 중 해외에 있는 8개국을 위한 거대한 어획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수출용 보건 관리와 품질 제고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어장에 제공하는 보조도 세계 시장과 유리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집행위는, EU가 요구하는 수입 기준에 맞추어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2,800만 EURO 규모의 살충제 관련 프로그램에 자금을 댈 예정이다. 또 TRADE.COM이라고 불리는 무역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5,000만 EURO 규모의 기반 사업도 지원한다. 이 둘을 포함한 5,400만 EURO 규모의 프로그램은 2004년 중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TRADE.COM의 3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아프리카 카리브해와 태평양 국가들이 특정 문제와 무역 장벽에 대해 검토하도록 만들고 보조하는 데 있다. 특히 이런 무역 장벽 중에서도 EU에 수출하기 위해 안전성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집행위는 2004년 100만 EURO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식품안전성과 동식물 보건과 같은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을 지키고, 농약잔류물 검사나 EU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집행위는 또한 특정 국가의 프로젝트 수행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잠비아의 수출 개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산자와 기업들이 농업이나 제조업 부문에서 동물가공품, 가죽제품, 가공식품과 향신료, 허브, 오일과 같은 부분에서 고품질 작물을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수출 지향적인 부문들에서 산출물, 수출량, 생산성 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4년 프로그램에 배당된 지원금액은 약 650만 EURO 정도이다.

2006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식품과 사료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교육과 'twinning'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EU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지정된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규제를 만족시키도록 함께 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무역촉진을 위한 지침

무역을 위한 명확한 식품안전성에 대한 규정은 EU 단위에서 만들어졌다. 동물과 동물가공품에 대한 EU의 수입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지침은, EU집행위의 식품 및 수의학 사무국(Food and Veterinary Office, FVO)이 제3세계와의 안전한 식품 무역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이것은 법률과 같은 강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EU에 수출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 지침은 기존의 법률적인 요구사항과 제3세계와 접촉한 FVO의 검사관이 규정한 특정 필요사항에 기반한다. 이 지침의 목적은 EU 법령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있다. 지침의 부분적 초점은 개발도상국이 그들의 상품을 수출하려고 EU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을 행해야만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있다.

지침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열람할 수 있다.

http://europa.eu.int/comm/food/fvo/pdf/guide_thirdcountries_en.pdf

덧붙여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돕기 위한 Help Desk가 2004년 초부터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관세의무, 관세서류, 원산지 표기 및 무역 통계에 대한 규정 등을 제공한다.

이 설비는 2004년 가을 식품안전성과 같은 특정 품목 수입에 대한 요구사항을 갱신할 예정이다. 이 Help Desk는 다음에서 사용 가능하다.

<http://export-help.cec.eu.int/>

5. EU 농업과 개발도상국

EU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다. EU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하는 가장 큰 수입국이다. 수입량에서도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수입량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그리고 EU는 아프리카 농산물 수출량 중 약 85%를 수입한다. 그리고 농산품의 수입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는 10.5%이다. 이것은 브라질의 평균 관세가 30%이고 개도국 사이에서는 60%인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EU는 좀 더 원하는 사항이 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WTO협상에서 EU가 제시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책이다. EU는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금을 철폐할 준비가 되어 있다. EU의 조건은 강력한 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시행하는 수출 신용과 ‘식량 보조(food aid)’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수출 보조나 혹은 캐나다와 다른 국가들이 말하는 무역 독점과 같이 개발도상국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수출 촉진 정책도 철폐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관세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무역 왜곡적인 농가 보조를 줄여야 한다. EU는 개발도상국들이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특정 보호책에 대한 기제가 마련될 때까지 개도국이 걱정하는 민감한 농작물에

대해서 ‘식량안보 박스(food security box)’를 만들어 돕기를 원한다.

개발도상국은 또한 계획적으로 그들의 농업 부문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은 세계의 49개 최빈국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완전히 관세와 할당량(quota)에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EU는 이미 이러한 단계를 밟았고, 지금은 우리의 전례를 따라서 다른 산업화 국가가 시행할 때이다.

우리는 나아가서 산업화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의 50% 이상을 무관세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EU는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이 부가가치가 있는 품목 수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저해할지도 모르는 관세의 단계적 확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출처: EU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orgio.net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